

ASAN POLL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여론연구센터
아산 데일리 폴 조사결과 요약

한·미 동맹 / 미사일 방어체제(MD) / 중산층 인식

2013년 5월 16일(목) ~ 5월 31일(금)

김지윤 연구위원

강충구 연구원

이의철 연구원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발표일 직전 3일,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

예) 5월 4일 수치: 5월 1~3일 조사결과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이란?

주요 정치사회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일 발표하기 위해 실사(data gathering)를 3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이다. 실사와 자료발표의 순환이 3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정치사회 지표는 직전 3일간 조사된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인용 시 반드시 출처(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고서는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 강충구 연구원(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 이의철 연구원(02) 3701-7337, ecllee@asaninst.org

- ▶ 국가안보 부정적 평가 1월-5월 평균: 59.3%
- ▶ 한국사회 중요이슈: 일자리 창출 > 남북관계 및 안보 > 경제 민주화 > 소득재분배
- ▶ 한·미 관계: 좋다 81.7%, 나쁘다 11.3%
- ▶ 한·미 관계 중요 사안: 군사동맹 구축 > 경제협력 > 과학기술 협력 > 환경문제 대응
- ▶ 한·미 동맹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 '86.7%', 도움이 안 된다 '8.6%'
- ▶ 향후 한·미 동맹 필요성: 92%
- ▶ 주한미군 국내 주둔 필요성 평가: 77.5%,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은 '47.5%'
- ▶ 한·미 정상회담 긍정적 평가: 66%
-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위협을 느낀 국민은 '39.7%'
- ▶ 미사일 방어체제(MD)가 필요하다는 국민은 '77.1%'
- ▶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은 '37.8%'
- ▶ 가계 소득의 상대적 위치 평가: '낮다 40.6%', '평균이다 41.5%', '높다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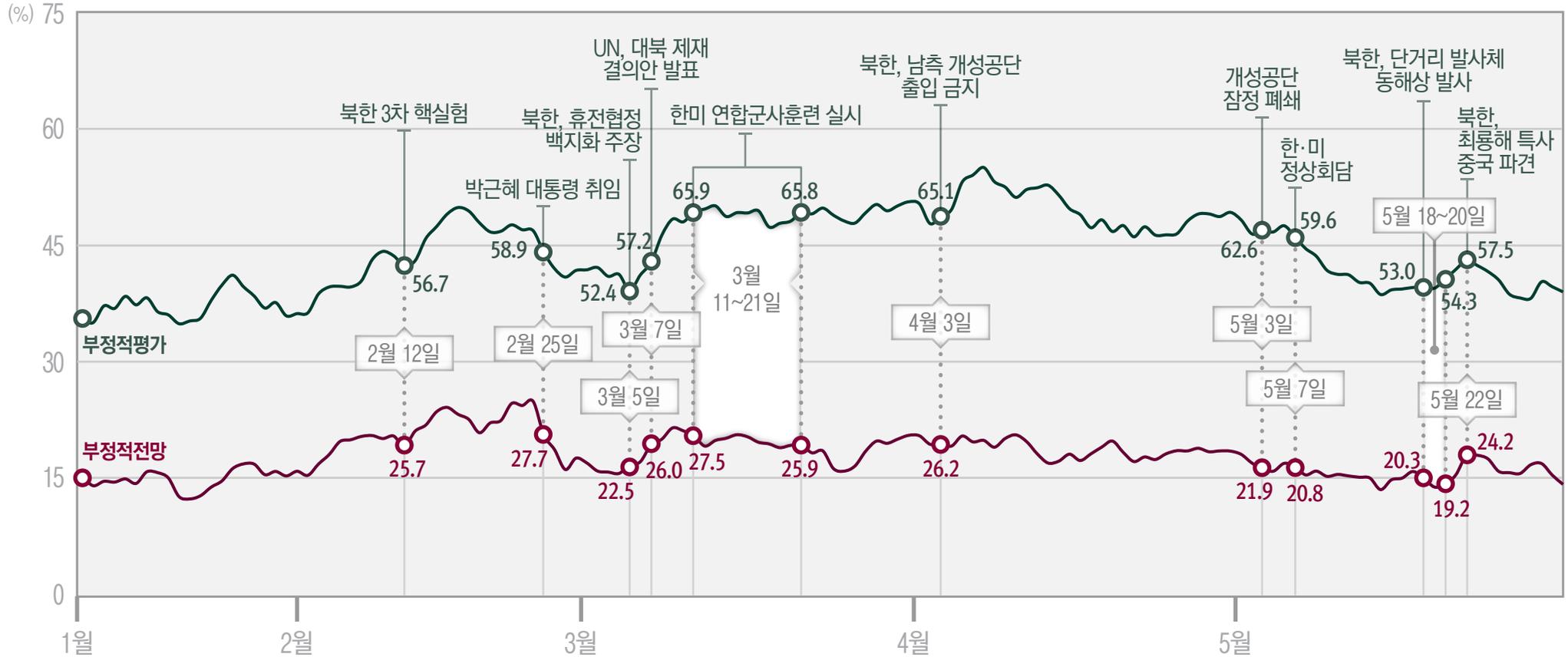
- 5월 18일-20일 북한, 동해안에 단거리 발사체 총 6발 발사
- 5월 22일 북한, 중국에 최룡해 특사 파견
안철수 의원, 정책 연구소 '정책 네트워크 내일' 출범
- 5월 23일 북한, 민간에 6·15 선언 기념행사 남북공동 개최 제안
- 5월 24일 북한 최룡해 특사, 중국 공산당 정치국 류윈산 면담
- 5월 29일 신고리·신월성 원전 가동 중단
라오스 정부, 13여명 탈북민 북송
- 5월 31일 UN, 라오스에 탈북민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촉구

- ▶ 남양유업 발 갑을 관계 논란 지속
- ▶ 종편 5.18 왜곡 보도 논란
- ▶ 재벌그룹 인사 및 사회고위층 역외 탈세(조세피난처) 논란 지속(21일-31일)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선생님께서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1월 12일 ~ 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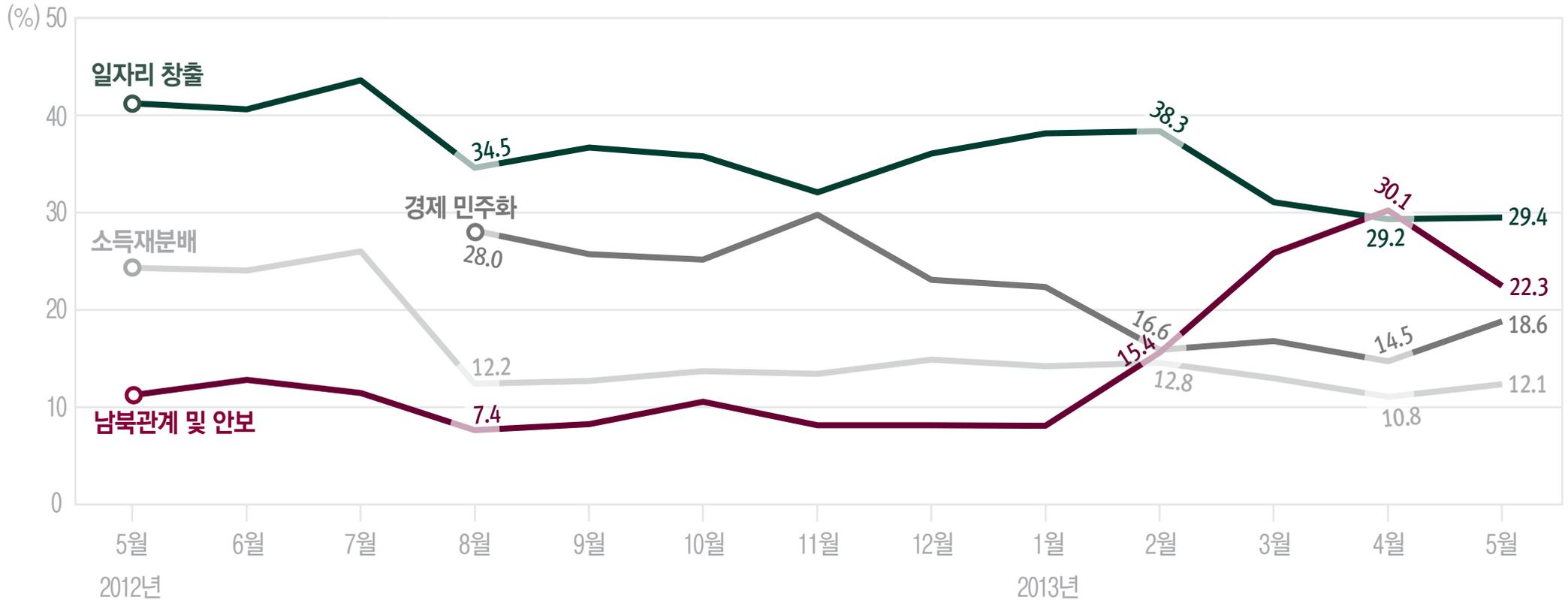
북한의 핵실험 이후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 동안 국가안보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는 많은 등락이 있었다. 특히 여론은 2월의 북 핵실험, 3월 북한의 휴전협정 백지화 주장, 4월의 개성공단 폐쇄 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3-4월 동안 국가안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의 비율은 64.7%로 높게 유지됐다(1월-5월 평균: 59.6%). 4월 3일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 금지 조치 이후 같은달 7일에는 국가안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73.5%로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5월말에는 현재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0% 초반으로 하락하며 핵실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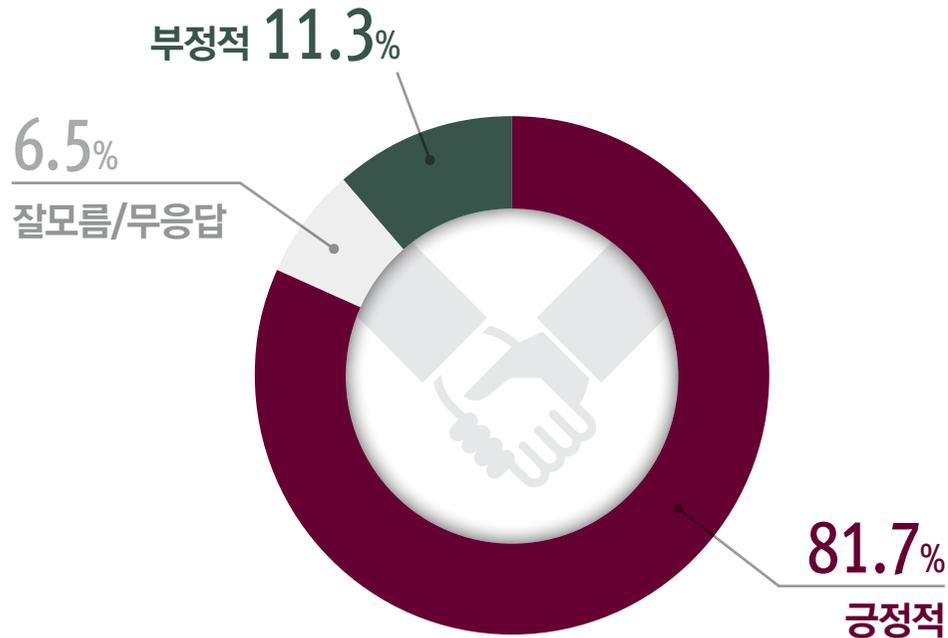
조사기간 5월 17~1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던 남북관계 및 안보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5월 들어 경제 이슈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난달 14.5%에서 이번달 18.6%로 증가했다. 4월 말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5월 내 남양유업발 갑을관계 논란이 지속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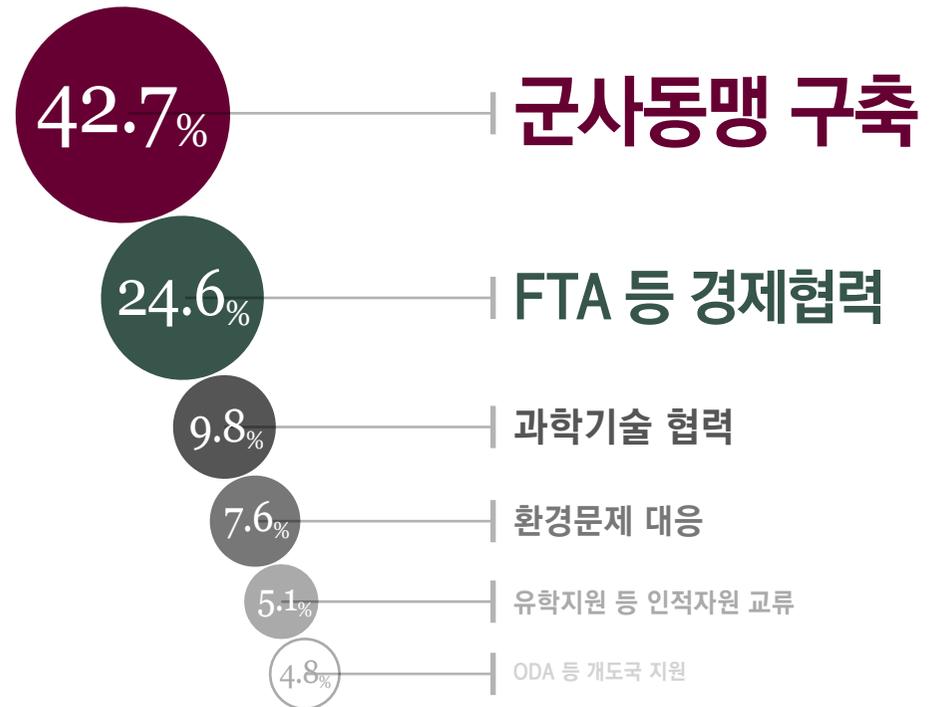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및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상당수 경민법 입안이 예고돼 있다.

Q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5월 14~16일



한·미 관계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열명 중 여덟 명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많은 한국인이 한·미 동맹을 상당 부분 군사 동맹의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본

Q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음의 사안들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5월 14~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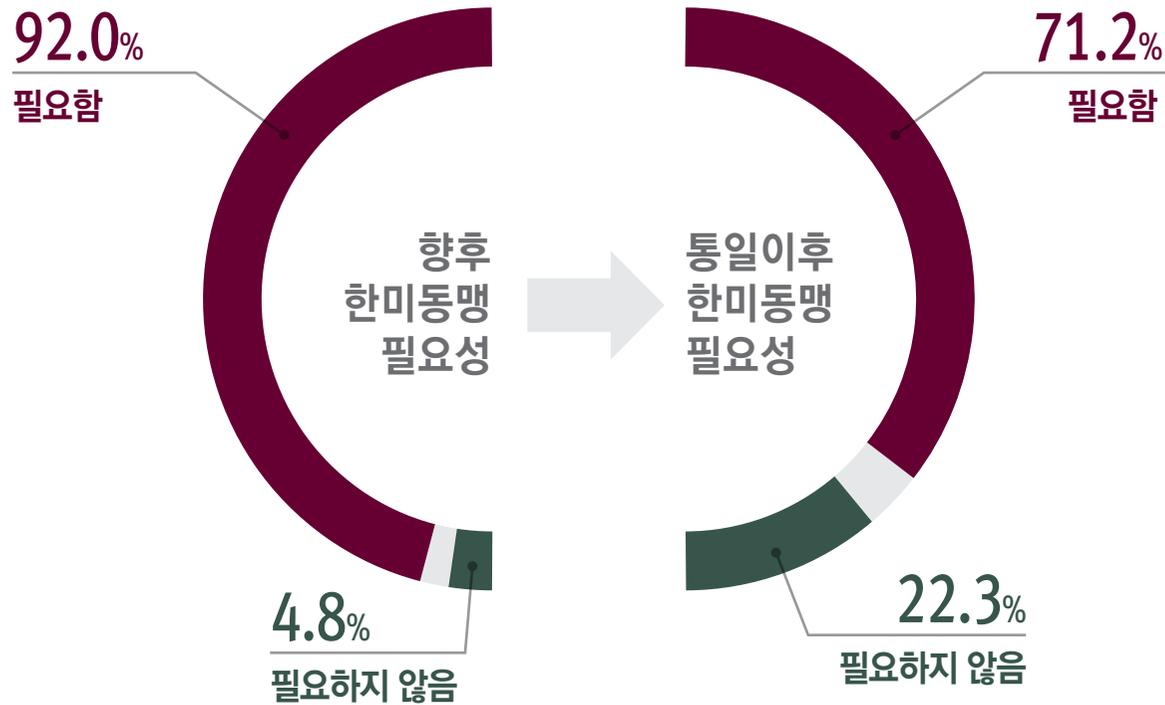


결과 86.7%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답하며 이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도움이 안 됨 8.6%).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물어본 결과에서도 42.7%가 군사동맹 구축이라고 답했다. 양국은 군사부문 외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 국민의 다수는 아직까지 한·미 동맹관계에서 군사적 측면을 가장 중시하고 있었다.



선생님께서서는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통일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5월 14~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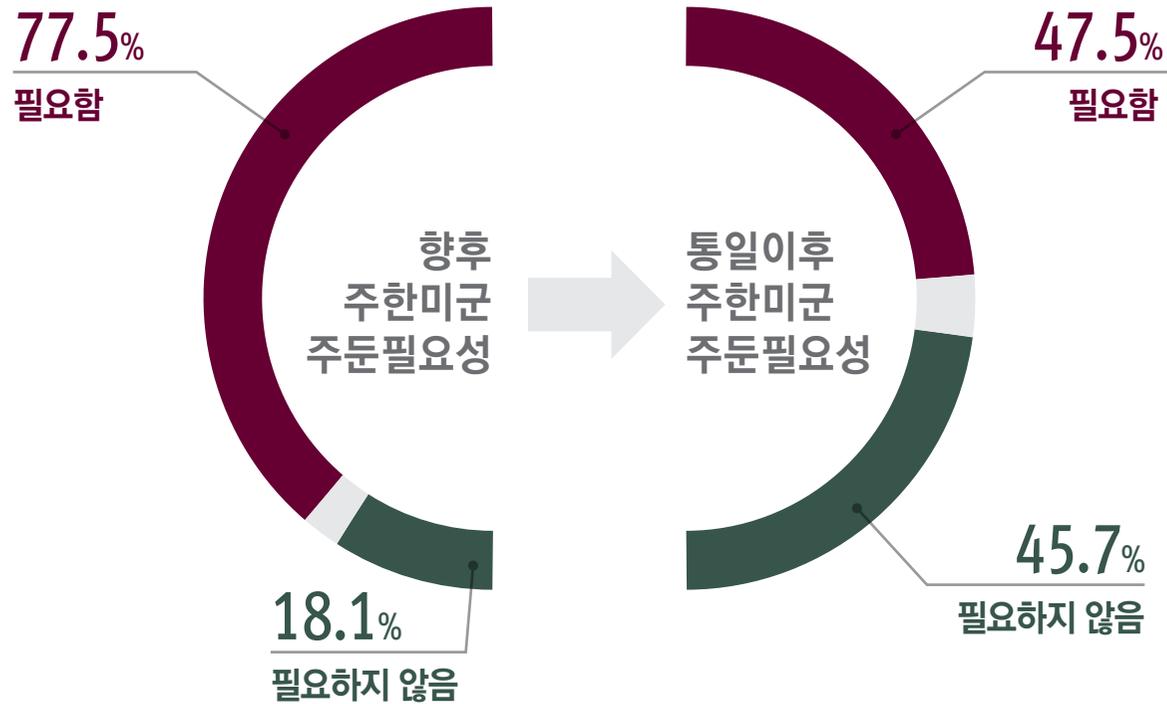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향후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92%의 응답자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양국간 경제·군사적 협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향후에도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통일을 가정한 후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71.2%로 줄어들었다. 약 20%의 응답자가 한·미 동맹을 북한 발 안보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여기고 있어 통일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간 동맹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께서서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앞으로도/ 통일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5월 14~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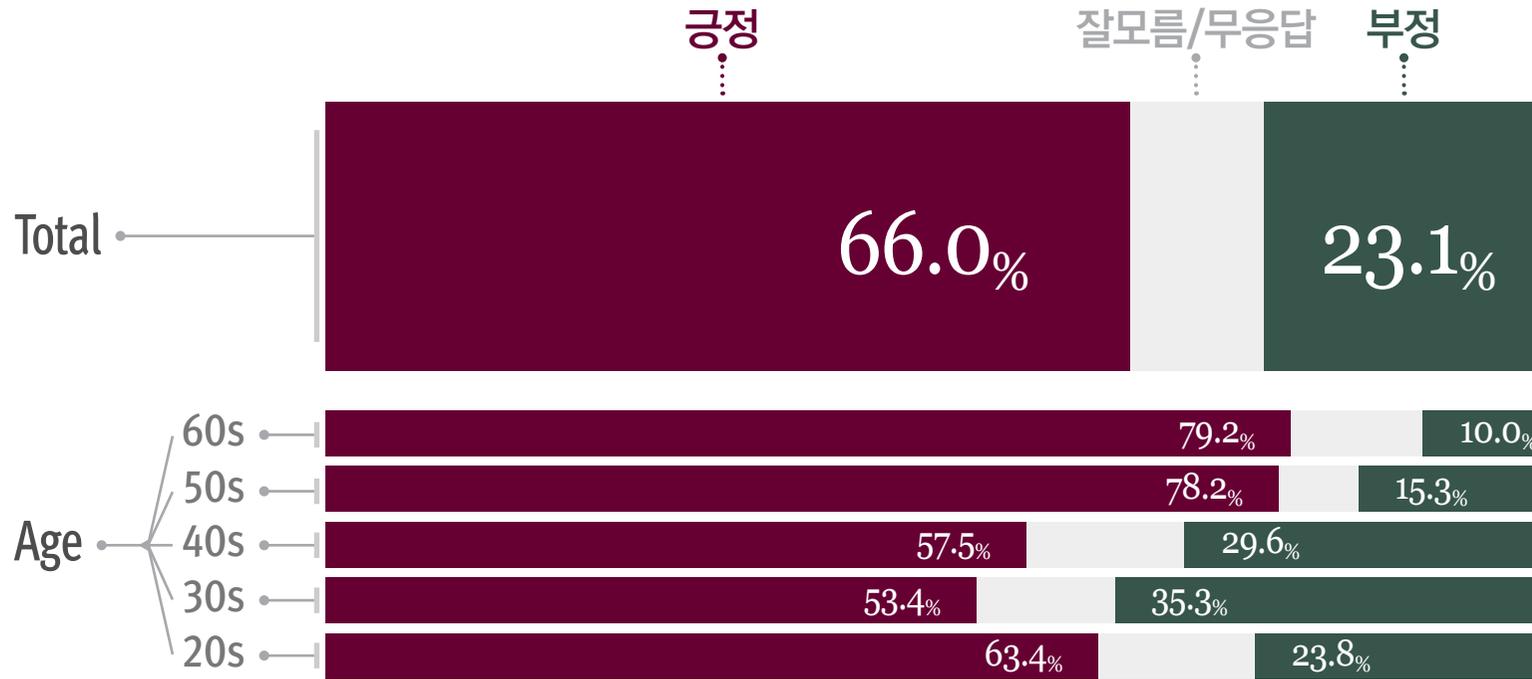
한·미 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해 물었다. 역시 77.5%의 국민이 향후에도 미군이 우리나라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통일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는 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응답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다. 45.7%의 응답자가 통일 이후에는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에도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본 71.2%의

수치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비율이었다. 많은 한국인이 통일 이후에도 한·미 동맹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한미군 범죄, 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으로 미군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점 역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께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사기간 5월 14일~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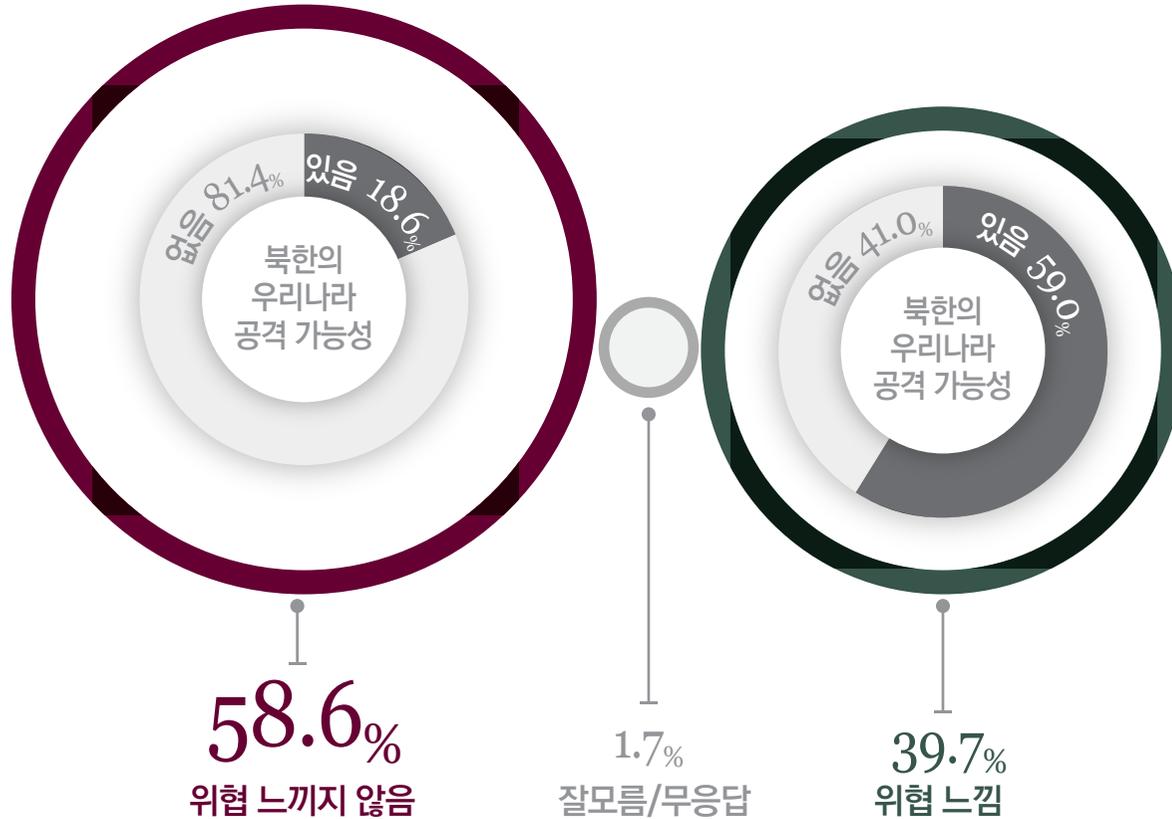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66%의 한국인은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지만 과반이 넘는 한국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긍정적으로 봤다. 세대별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30대(53.4%)와 40대(57.5%)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50대의 78.2%, 60대 이상의 79.2%가 한·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알려진 50대 이상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후한 평가를 하고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계십니까?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등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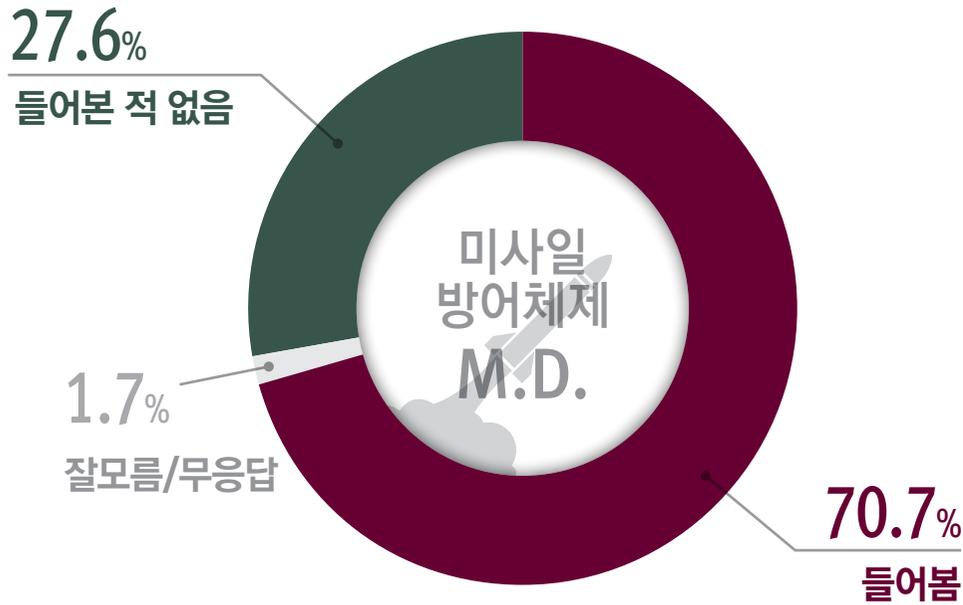
조사기간 5월 23~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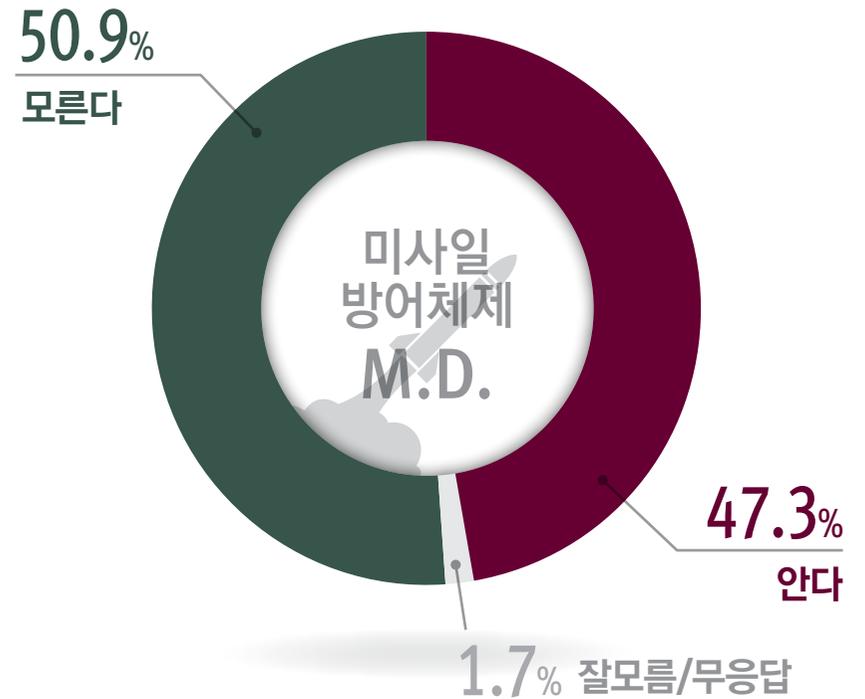
지난 5월 18일에서 20일까지 북한은 총 6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에 발사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떻게 느꼈을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위협을 느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7%만이 위협을 느낀 것으로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이 실제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발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33.2%의 응답자 만이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핵무기 등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협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Q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기간 5월 23~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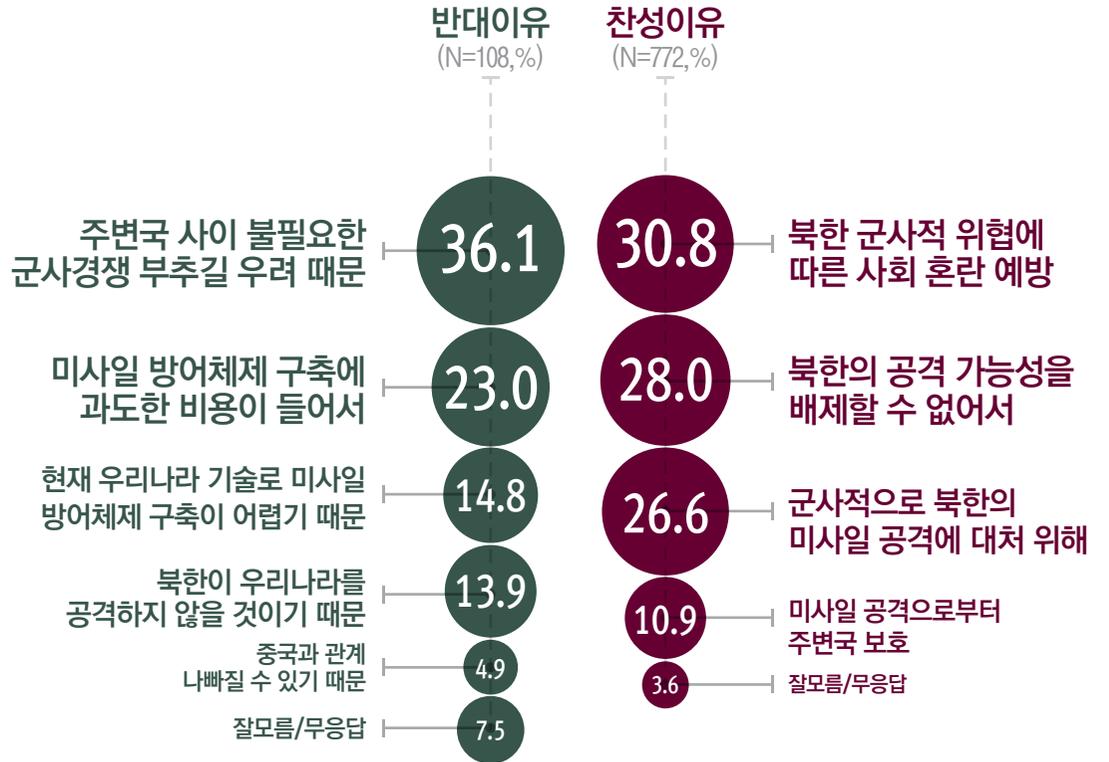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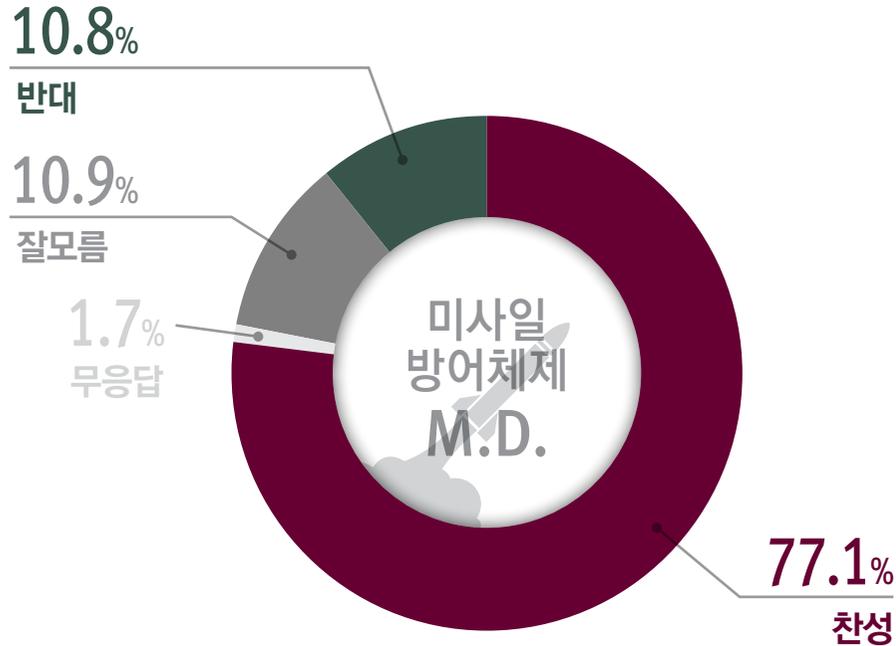
Q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조사기간 5월 23~25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체제(MD)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MD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꾸준히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70.7%의 한국인이 MD에 대해 접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세한 내용까지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3%로 과반에 못 미쳤다. 이는 방위체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어서 일반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Q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5월 23~25일



MD에 대한 찬반을 살펴본 결과 77.1%의 국민이 MD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북한의 공격에 대해 사전적 예방을 통해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30.8%)이었다. 10.8%는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주변국 사이의 불필요한 군사 경쟁을 야기할 수 있어서(36.1%), MD 구축에 과도한 군비가 들어서(23%) 등이 있었다. MD를 구축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우리 국민은 ‘독자적인 방식’과 ‘미국의 미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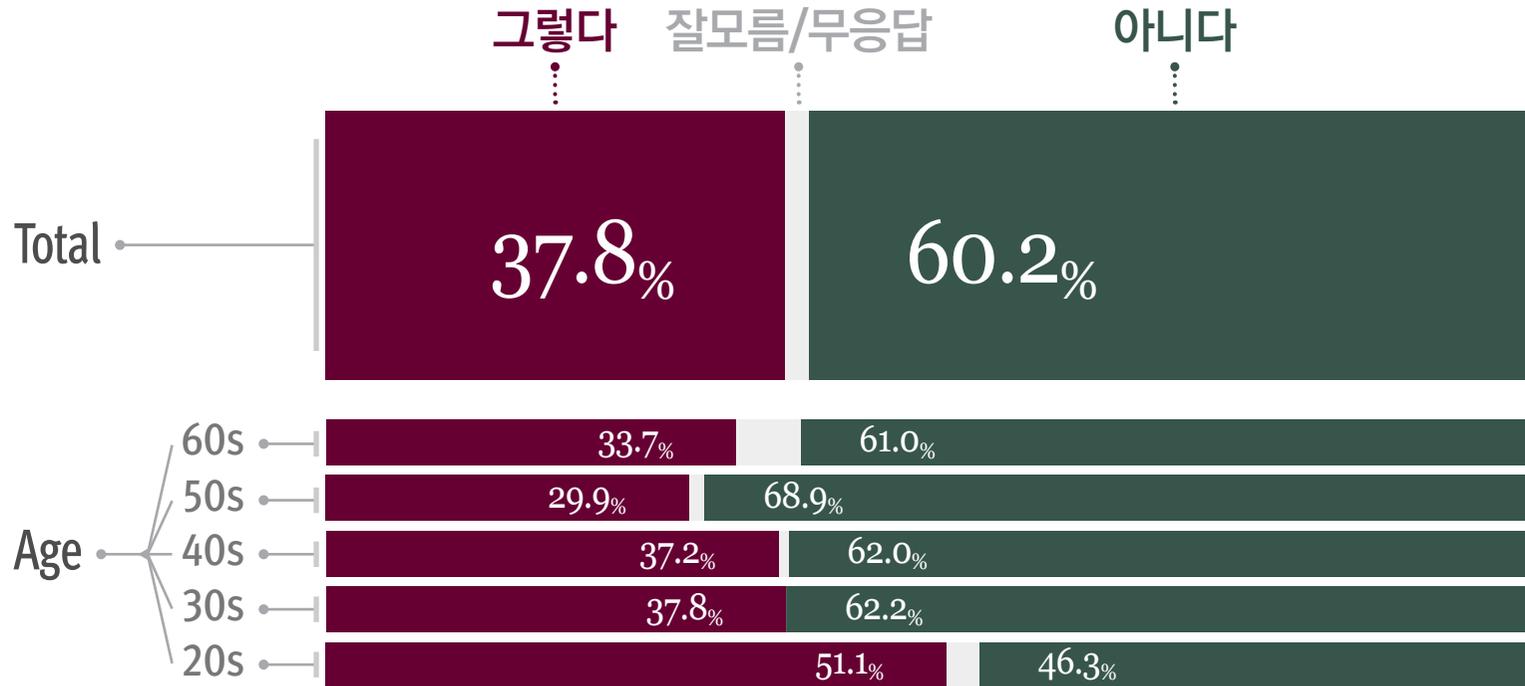
방어체제 참여’ 둘 다 찬성하고 있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75.4%(반대 14.6%),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83.1%(반대 8.9%)였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실시한 데일리풀 조사에서는 미국의 MD에 참여하는 것, 한국형 MD를 구축하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물어봤다. 그 결과, 72.5%가 한국형 MD구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형의 MD에 동참 18.9%).¹⁾

1) 아산데일리풀 2/13-15



선생님께서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5월 26~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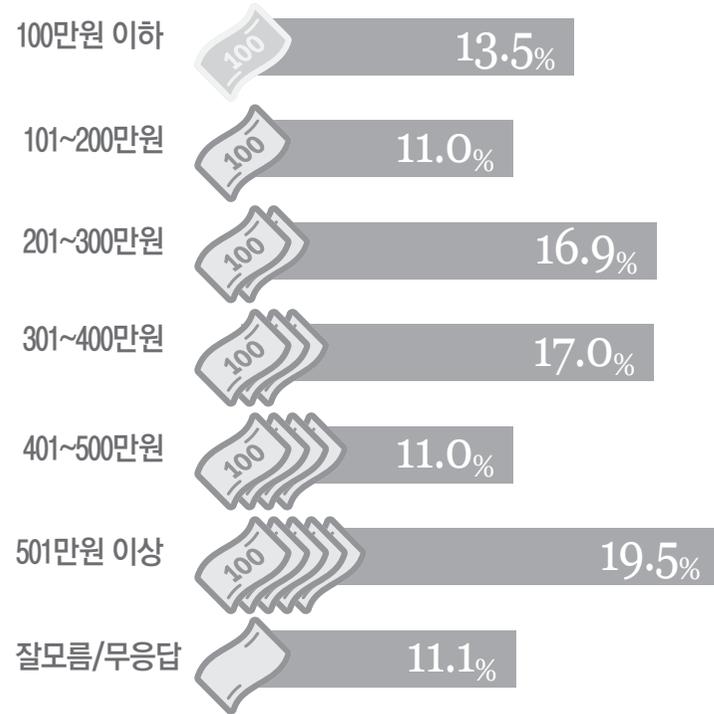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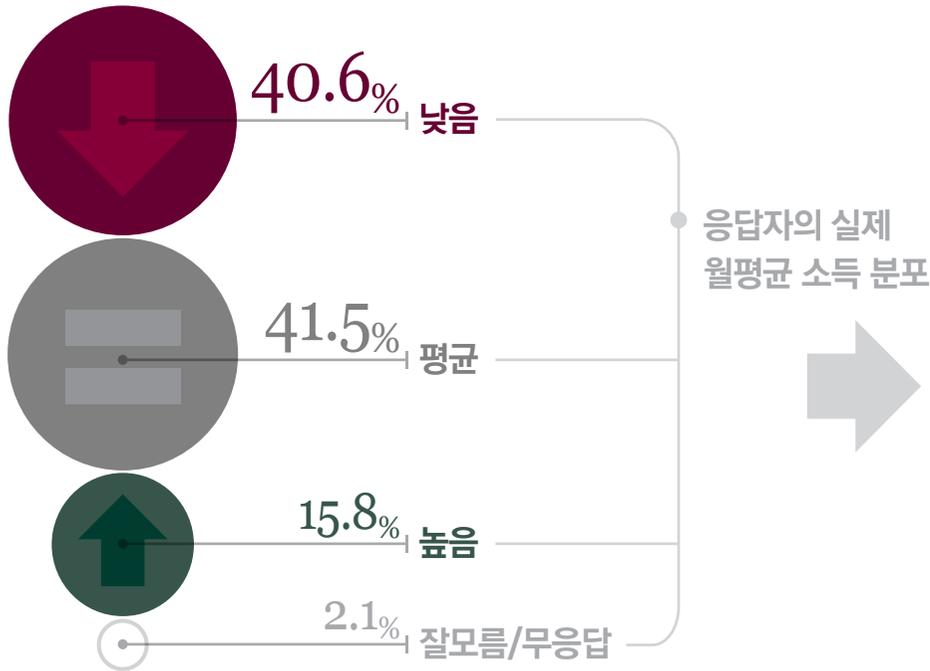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중산층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한 바 있다. 실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한국인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조사결과,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20대 응답자의 51.1%는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겨 30대-60대 이상의 다른 연령대 응답자들과 많게는

21.2%의 격차를 보였다. 20대를 제외할 경우 전체 평균보다 3.1% 낮은 34.7%의 응답자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50대의 경우 중산층 의식이 가장 낮은 세대였다.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는 비율이 채 30%가 되지 않았다. 50대가 체감하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타 세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선생님댁의 소득은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5월 26~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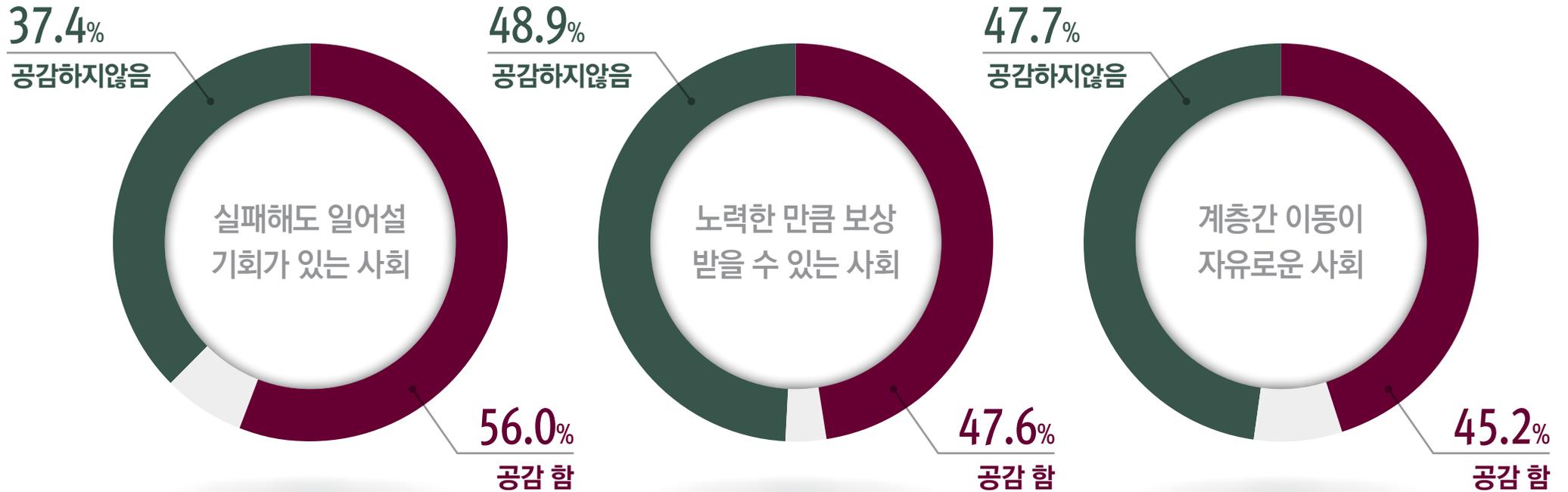
우리 국민의 40.6%는 본인의 가계 소득을 평균보다 낮다고 여기고 있었다. 41.5%는 평균으로, 15.8%는 평균보다 높다고 답했다. 14%의 응답자는 자신의 가계 소득이 평균보다 훨씬 낮다고 여기고 있었다. 실제 응답자들이 답한 월 평균 소득 분포의 경우, 200만원 이하 24.5%, 201~400만원 33.9%, 401만원 이상 30.5%였다. 중산층 의식과 가계 소득에 대한 상대적 인식 모두에서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평균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과거 부모세대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현재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34.7%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었고(그대로 35.4%, 낮아짐 27.2%), 미래 자녀세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자신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53.8%이 이르렀다(그대로 32.2%, 낮아질 것 7.4%).



Q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기간 5월 26~28일



공정사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이동에 대한 몇 가지 진술문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물었다. 먼저 “한국사회가 실패해도 일어설 기회가 있는 사회” 라는 주장에는 56%가 **공감한다**고 답했다(**공감하지 않는다** 37.4%).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 라는 주장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48.9%, **공감한다** 47.6%, “계층간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 라는 주장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47.7%, **공감한다** 45.2%

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은 현재 사회적으로 폭 넓게 논의되고 있는 ‘패자부활’에 대한 공감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 ‘계층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공정 사회’에 대한 논의에는 상대적인 공감도가 낮았다.

